

## 항상 기쁘게

이사벨 차룬 Isabel Charun 은 페루 남부 까네떼 Canete 에 있는 콘도라이 Condoray 전문 직 센터의 구역장이다. 오프스 데이 회원이기도 하다. 얼마전 페루에 있었던 대 지과 본인의 가정에 대해 말한다. 지방 주민들과 그녀는 성 호세마리아 와 까네떼 지방의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도움을 간구했다고 한다.

2007-10-24

“저는 괜찮아요. 흙 집이라 머리에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며 7살인 남자아이 로드리고Rodrigo는 천진난만하게 말한다. 로드리고는 이사벨 차룬의 13명의 자녀 중 한 명이다. 이사벨은 지난 2월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서 용기와 식식하게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하느님께 그리고 성호세마리아에게 감사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집에서 뛰어 나와 살아있어요. 강한 믿음으로 기도를 했지요. 가장 위험한 곳에 있던 딸, 디아나도 무사했고 저랑 살고 있는 자식 11명은 다친 곳 없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했어요. 벤자민은 친구 나치또랑 놀다가 내 곁으로 달려왔지요”

대 지진은 그녀의 집을 무너지게 했다. 남은 벽은 너무 위험해서 붕괴했다. 커다란 파란색 비닐이 집 대문이

있었던 곳을 덮고 있다. “아주 작은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하지만 자식 모두 다친 곳 없이 무사히 살아있어요. 하느님께 감사 할게 너무 많지요” 대 지진 있던 밤, 마을에 있던 사람들과 모여 까네떼 지방의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께 로사리오 기도를 했다고 회상한다. “ ‘아름다운 사랑’의 모후는 성 호세마리아가 우리 지방에 준 선물 중에 하나이지요. 성모님이 우리 골짜기를 보호하셨어요. 며칠 동안 강한 미진이 계속 있었는데 온 마을이 흠, 먼지 속에서 생활을 했어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지요. 재난 속에서 이웃을 위로하고 희망과 작은 기쁨이라도 나누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사벨 차룬의 ‘부대’는 눈에 띄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삽과 손수레를 물고 항상 기쁜 모습이었다.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건데” “왜 그렇게 태연하냐” 하고 물어왔지만 이사벨은 “하느님께서 더 잘 아시

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 꿈과 희망.

이사벨의 큰 딸 오달리스는 음료수와 샌드위치를 만들어 고속도로에 나가 지나가는 트럭기사들에게 팔아 소 수입을 벌었다. 그녀의 꿈은 작은 주스가게를 집에 차려 가족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계획이 현실화 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차룬 가족 일원들은 개개인 나이에 맞게 할 일이 있다. 저녁 시간에 모두 모이면 학교에 있었던 일이나 어린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작은 에피소드들을 이야기를 한다. 이사벨은 “우리 가족은 가난해요.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않지만 화목하지요. 지금은 더욱 화목하고요. 큰 자식들이 일을 해서 동생들의 교육비 지원도 합니다. 저의 남편은 벽돌직공을 했었는데 2월에 돌아갔어요. 그의 빈자리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도 큼니다”

## 하느님의 손길.

“성 호세마리아는 저에게 항상 기쁘게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찾으라고 했지요. 좋은 일만 봉헌하지 말고 고통이라던가 고민도 말이지요. 오늘, 이 재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사랑합니다. 하느님의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라고 이사벨은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위해 희생하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아무리 간난하더라도 이 의무를 피하면 안되지요. 아무리 조금 소유한다고 해도 이웃과 나누어야 해요. 말라 Mala에 사는 아주 가난한 농민의 딸을 아는데요 그녀는 지진 후 감자 1킬로를 보내주었어요. 본인도 그 식량이 필요했을 텐데요. 또한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와 식량을 주고 갔지요. 지나가던 어떤 트럭은 우리에게 이불을 주기도 했어요. 우리 가족은 아이들도 많으니까.....”

## 구역장의 역할: 사람들을 위한 봉사.

이사벨은 가정일과 꾀도라이 구역장의 일을 같이 하고 있다. 꾀도라이는 오프스데이의 corporate undertaking 이다. 이 센터의 목적은 꾀네떼 지방의 농민 여성들의 인간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발전을 위해 일을 한다. "그곳에서 나는 다른 여성들을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해 19살부터 구역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배운대로 한명씩 한명씩 만나 일을 사랑하는 법, 관대하고 기쁘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요. 인생에는 고비가 많지만 포기 할 수 없잖나요." 구역장은 다른 여성들에게 교육제공과 더욱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가르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지진 후 구역장들은 여러 가정을 방문해 꾀도라이 센터가 800가구를 넘게 도울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이사벨은 주부로서 구역장으로서 수년간의 일을 이렇게 설명한다 "가정과

일터에서 성 호세마리아는 저에게 큰 본보기입니다. 일상적인 일을 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로 아름다운 하느님의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지요”

현재 곤도라이 전문직 센터는 대 지진으로 인해 피해 입은 890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www.condoray.edu.pe/ayuda/ini.htm](http://www.condoray.edu.pe/ayuda/ini.htm)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hangsang-gibbeuge/> (2026-2-22)